



춘향 길놀이

◇ '광한춘몽(廣寒春夢)'의 춘향제

올 제89회 춘향제 주제는 광한춘몽(廣寒春夢)이다. 우리나라 4대 누각 중 하나인 광한루(명승 제33호, 보물 제281호)가 올해 건립 600년을 맞이하며, 광한루를 중심으로 연인·가족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봄 축제 공간을 만들고자하는 마음을 담아 전통과 공연문화예술로 가득찬 전통문화, 공연·전시예술, 놀이·체험,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4종목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특히, 춘향제 본연의 전통공연예술 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광한루원 실경무대를 배경으로 한 '춘향선발대회'와 개막공연 '춘몽(春夢)' 및 조카녀제통춤보존회의 '소령(召命)', 남원시립국악단의 '민속악의 향연', TBN 교통방송의 '해피 춘향제', '남산 일 쇼', 전북발레시어터의 '춤춘향', 한복 패션쇼 '광한춘몽(廣寒春夢)'과 장미춘향(長美春香), '지금은 춘향시대', '코미디춘향전', '춘향그네체험', '춘향국악대전' 등의 전통과 함께 공연예술 프로그램에 집중한다. 이밖에도 특유의 전통공연예술 이외 퓨전공연, 가족공연, 길놀이로 확대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축제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퓨전·대중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실수정 앞 천변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한판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울림 마당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관객들의 취향과 흥미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품인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한 무대이지만 그 어느 무대 못지않게 많은 관객들이 모여들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 여성제관들이 이끄는 '춘향 제향'

춘향 제향은 개막공연에 앞서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한루원 완월정 무대에서 펼쳐지며, 기원은 1931년 단오날 남원 권번 주관으로 춘향의 절개를 이어 받기 위해 춘향사당에서 추모의 제사를 올린 것이 시작이다.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기다렸던 민족 독립정신과 여성들만이 제관으로 이루어져 양성평등 춘향정신을 엮을 수 있다.

◇ 춘향정신 기득한 춘향선발대회

춘향제의 상징 프로그램인 '춘향선발대회'는 항상 사전행사로 시작을 알렸던 거와 달리 더 많은 시민, 관광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5월 8일 축제 첫날 밤 7시 30분에서 펼쳐진다. 신영일, 최희 아나운서 사회로 광한루원 완월정 무대에서 춘향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축하공연으로는 여자아이돌, 타겟, The 히든 등이 참여해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울 예정이다. 선발된 춘향은 행사기간 춘향제향, 춘향길놀이, 체험, 포토타임 등 주요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우고 탐방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 개막공연 춘몽(春夢)

춘향제 개막공연은 9일 밤 7시 30분에 열린다. 개막 공연 춘몽(春夢)은 고전 '춘향전'의 신관사또 생일 축하잔치를 주제로 신관사또부임행차 행렬, 길놀이 모듬북 공연



신관사또부임행차



춘향 제향



춘향선발대회

등이 이어진다. 또, 안숙선 명창, 저글링 팀 브라더스, 비보이 라스트원, DJ김태준, 국립민속국악원, 남창동출타기 등이 신명나는 퍼포먼스와 함께 어울려지며, 자유로운 봄날의 꿈처럼 차별 없는 화합의 잔치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하고 싶은 관객들을 기다린다.

◇ 방자춤-달빛춤

11일에는 선녀들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월고 아래에서 흥겨운 춤판이 펼쳐진다. 오전 12시부터 전국의 스트리트, 실용무용, 순수무용, 전통 무용 등 최고의 춤꾼들이 모여 수준 높은 경연이 이루어져 오후 5시 30분부터 최고의 심사위원

원 판관협준, 최수진, 모니카, 친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의 춤꾼을 선발한다. 또한 방자춤의 '달빛춤'에서는 10일과 11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7890 고고장', 'EDM DJ 파티'를 테마로 2일 동안 달빛 아래 흥겨운 춤판이 펼쳐진다. 10일 밤, 달빛춤 7890 고고장 행사 참가자에게는 춤과 흥에 취할 수 있도록 7890 아이템을 증정해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70, 80, 90대의 세대 추억여행을 선물할 예정이다. 11일 밤 10시에는 국가대표급 DJ SCHEDULE 1(스케줄원)과 함께 EDM 심야 파티에 젊은이들을 초대한다. 또한 승월고 무대 '광한춘몽 콘서트'에서는 처음으로 TBN 라디오 공개방송을 마련해 제89회 춘향제가 전파를 타

廣寒  
春夢  
(광한춘몽)

봄바람을 타고  
사랑에 빠지다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막공연 '춘몽' 부터  
춘향제향·춘향선발대회  
국악대전·길놀이 등  
공연·체험행사 다채

〈사진=춘향제전위 제공〉

남원의 봄의 향기 춘향(春香)이 봄바람을 타고 또 다시 남원을 찾아온다. 남원춘향제전위(위원장 안숙선)는 제89회 춘향제를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전통문화행사, 공연예술행사, 놀이체험행사, 부대행사 등 4개 분야 24개 종목이 펼쳐진다. 올 춘향제전위는 축제를 변화시켜 전통을 기반으로 한 퓨전과 대중공연을 강화했다. 전통공연으로는 춘향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퓨전음악, 제3세계음악, 실험예술, 컨템퍼러리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공연예술제의 영역을 확장했으며, 대중공연을 대폭 늘려 젊은 층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 전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생한 축제현장의 흥을 전할 예정이다. 10일 밤8시, '광한춘몽 콘서트 PART I'에는 박상민, 마야, 디핑스가 11일 밤 8시, '광한춘몽 콘서트 PART II'는 육중완밴드, 노브레인, 정수라, 고은현 트리오가 달빛과 함께 잊지 못할 한밤의 꿈같은 콘서트를 펼친다.

◇ 지금은 춘향시대

춘향제의 상징형 프로그램인 '지금은 춘향시대'에서는 춘향전의 이야기를 녹여 낸 재미있고 매력적인 공연과 게임, 전시 및 체험 행사를 구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이 사포의 일상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관객과 함께 즐기는 '신관사또 뽀나들이'와 춘향제의 역사와 전통을 신세대의 익살과 유머를 가미한 단막극으로 꾸민 '코미디 춘향전' 있고, 게임 프로그램으로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미션게임 '사랑의 주사위'는 광한루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 명인명창의 등용문-춘향국악대전

한국 최고의 명인명창 등용문인 춘향국악대전에서는 그동안 조상현 명창을 비롯해 성창순, 남해성, 안숙선 등 우리시대 최고의 명창을 배출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랑의 광장과 광한루원 완월정 무대에서 개최된다. 춘향국악대전은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판소리, 민요, 무용, 기악관악, 현악·병창 5개 분야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대표 국악인들이 서로 갖고 있는 장기를 경쟁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춘향제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으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12일에는 춘향국악대전 결선무대에서는 춘향제의 전통성이 강조된 전통가라과 우리소리가 하루 종일 광한루원을 휘돌아치게 할 것이다.

◇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

일년에 한번만 개최되는 광한루각(보물 제281호)에서는 5월 11일 13시, 15시 2회에 걸쳐 '판소리, 보물위에 서다' 공연이 열린다. 인위적인 무대시설 없이 자연을 병풍 삼아 대룡령상을 수상한 명창들(1회 : 신영희, 김소영, 김세미 /2회: 유수정, 김미숙, 양은주)의 소리와 명인들의 연주, 명고의 장단을 듣는 감동은 전통 국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 야외 음악 한옥 카페-예촌 무대

이번에 신설되는 남원예촌 무대는 춘향제의 전통을 살리면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관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문화기획 삼진강 '별사극 춘향전', '춘향전 주인공 찾기', '샌티멘탈로그 동서양의 음악에 빠지다', '전북VIVA성악연구회 '춘향제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오감도 '세상이 열린다', 최상엽 '잃어버린 감성을 찾아서', 음담악설 '다시 찾아오는 여름과 지나가는 봄을

그리며', 이창선 대금스타일, 훌라(HOOLA) '사운드 오브 북성로' 다양한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우고 탐방객들에게 재미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 5월 축제 소풍은 몽룡놀이터로

올해 신실한 몽룡놀이터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광한루원 정문 일원에서 가족 단위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선보인다. 국내 최정성급 복화술사가 펼치는 '복화술쇼', 만화의 한 장면처럼 다양한 요술풍선으로 만들어지는 '마술풍선쇼', 어린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창작인형극', 풍선아티스트의 '길거리 퍼포먼스', 신비로운 요술 지팡이를 든 마술사, 세계대회에서 수상경력을 가진 외발자전거 아티스트 공연이 '발발서커스 공연장'에서 어린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는 미니기차, 에어바운스, 체험부스 같은 상시놀이터를 운영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 길거리 퍼포먼스-춘향 길놀이

춘향길놀이는 공연 일정을 지난해 1회에 2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즐기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렬경로(용성초→남문4가→삼교동성당→실수정 뒤→광한루정문)를 변경했다. 특히,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술과 떡을 마련해 참가자와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등 한편의 뮤지컬처럼 공연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 무료순환버스 운행

올해 처음으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펼쳐지는 제89회 춘향제 기간동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생비행장과 춘향골체육공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한다.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주생비행장-보건소-승사교4가(축제장)-구남원역-시청3가-춘향골체육공원 코스를 순환 운영하게 되며, 이용객은 승사교4가에서 하차하여 축제를 즐기면 된다. ▲운행시간은 축제 첫날인 5월 8일은 오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행하며, 5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0분 간격이다.

◇ 춘향골 열린음악회

마지막 날 열리는 남원시민화합 한마당은 춘향제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밤 8시부터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춘향골열린음악회는 인기 가수 장윤정, 김연자, 김혜연, 청하, 엔플라잉, 현진영, 성진우, 카밀라, 오로라,진해성, 조은성, 태하가 함께 축제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한편 춘향제전위에서는 광한루원 밖 주변 도로에 사랑제림마당을 조성해 부메랑 만들고 날리기, VR 가상체험, 물고기 잡기 체험, 캐리커 팸 만들기, 쿠키·채소 잼 만들기, 미세먼지 증강현실 체험, 사진 머그컵 만들기, 등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도 춘향 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사랑등불행렬, 신관사또부임행차 등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남원=김기주 기자